

# ISO 회의 참관기

박 창 규

건국대학교 섬유공학과

필자가 ISO 회의를 처음 다녀온 것은 2001년 ISO/TC38 (textiles) 총회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서 열렸을 때이다. 이후 아래와 같이 약 4년간 8번의 ISO 관련 TC와 SC 총회와 WG 회의에 참가한 바 있다. 대략 한 회의에 3-4일 정도 한다고 가정하면, 총 9번의 참가에 30-40일을 ISO 회의에 투자한 셈이다.

- 2001. 5.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ISO/TC38 총회, ISO/TC38/SC11 회의, ISO/TC38/SC11 회의**에 섬유분야에서 최초로 한국대표로 참가
- 2001. 8.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린 **ISO/TC38/SC1 & 2 총회 및 WG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
- 2001. 10. 이태리 밀라노에서 열린 **ISO/TC38//WG9 회의**에 참가
- 2002. 4.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SO/TC38//WG9 회의**에 참가
- 2002. 5. 이태리 밀라노에서 열린 **ISO/TC38/SC24 총회 및 WG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
- 2002. 10.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ISO/TC38//WG9 회의**에 참가
- 2003. 12. 한국 제주도에서 **ISO/TC38 총회** 개최 및 **SC, WG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
- 2004. 4.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ISO/TC38//WG9 회의**에 참가
- 2004. 7.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ISO/TC38 /SC1 & 2 총회 및 WG 회의**에 한국대표로 참가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ISO/TC38 총회는 한국에서 최초로 섬유분야에 대표단을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채로 산업자원부의 표준화 과제를 기술표준원의 위탁기관 책임자로 수행한다는 이유로 민간 전문가로 위촉되어 한국대표 자격으로 총회에 참가했던 필자와 한국 간사기관인 FITI의 탁정필 당시 과장은 출발이 서로 달라 현지에서 만나기로 했었다. 비행시간만 18시간으로 서울-홍콩-요하네스버그-케이프타운을 거쳐서 드디어 지정된 호텔에 도착했을 땐 거의 초죽음 상태였다. 짐을 대강 정리하고, 다음 날 오전 9시에 회의가 열릴 예정인 호텔내의 회의장소를 확인하고 정확한 프로그램이라도 얻어 보려고 돌아다녀봤지만 좀 이상한 것은 아무 곳에도 ISO 회의의 관련 안내문도 없고, 등록 데스크도 없고, 안내 데스크에 물어봐도 여기서 그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만을 들려줄 뿐이었다.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뭐 딱히 할 일도 없었다. “내일 아침이면 현관에 현수막도 붙고 안내 게시판도 붙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도저히 ISO 총회가 열릴 아무 기미가 없는 듯 했다. “국제적인 ISO/TC 총회인데, 내가 뭘 잘못 알았나?” 서서히 밀려오는 불안함. 8시가 넘었는데도 호텔 내에는 아무 기척이 없었다. “한국대표로 왔는데 실

수라도 하면 어찌지?” 그냥 불안감에 서성이고 있는데, 드디어 자그마한 ISO 안내판이 로비에 하나 세워졌다. 내려가 보니 한 자그마한 방에 순식간에 오피스가 꾸며지고, 메일 박스가 세워지고 각종 문서들이 채워지고, 명찰도 놓여졌다. “웬 오피스에 웬 메일박스!” 갑자기 분주하게들 움직이더니 곧 ISO/TC38 총회가 시작된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대개 ISO/TC38 총회는 매우 실용적인 행사로 치루어진다. 국제 학회 같은 행사겠거니 상상했던 나로서는 무척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제법 큰 회의실에 들어서니 각자의 테이블 위에는 각 참가자의 이름과 함께 각 참가국의 국기가 놓여있고, 마이크 폰이 설치되어 있었다. “호! 역시 품격 있는 회의는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럼 그렇지.” 회의가 시작되자 몇몇 사람들이 앞쪽 테이블에 앉아 회의를 시작하며 진행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Chairman, Secretary들 이란다. 각국의 대표단 하나하나 각자 소개하는 자리여서 나도 대표로 비교적 멋있게 우리 소개를 했다. 제법 박수를 많이 받았다. 역시 나중에 안 일이지만 다들 “ISO/TC38의 투표권이 있는 한국이 드디어 ISO/TC38 총회에 등장했구나!” 하는 환영의 박수였다. 진정으로 ISO 국제무대에 첫 등장을 축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부터였다.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르는 필자와 탁정필 과장은 서로 바라보며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다. 우선 ISO 시스템을 모르는 지라 툭툭 튀어나오는 NWIP 니 CD니 SC니 전문용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 Objection, Abstain 마구 튀어나오고, 옆자리 다른 나라 대표단을 보니 웬 서류철들을 왕창 테이블 위에 쌓아놓고 있었다. “앵! 우리는 이메일로 받은 행사 안내서와 일정표 말고 아무 것도 없는데...” 좀 지나더니 다들 뭔가 서류들을 뒤지고 살피고... 난리다. “Please, look at the document N number xxx” “도대체 뭘 소린지? 웬 Document N number?” 그 말 나오면 다들 그 두꺼운 서류철에서 문서들 꺼내고 난리다.(나중에 안 일이지만 ISO 공식 문서는 N

으로 시작하는 문서번호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문서 하나놓고 또 다들 뭔가 열심히 토의하고... N Document고 뒤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찾을 문서도 없고, 들여다 볼, 같이 검토할 것도 없고... 뭐 거의 하루종일을 아무 것도 할 일이 없었다. 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급조된 오피스에 가면 필요한 문서를 다 출력하고 복사할 수도 있었다. 말하기 좋아하는 나로서는 너무나 고역스러운 자리였다. 난생 처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장시간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냥 있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들리는 대로 조금씩 받아서 적어놓기는 했지만... 간혹 2-3시간 만에 돌아오는 Coffee Break 와 식사 시간에 다른 나라 대표단에게 축하받고, 한국 사정 들려주는 게 전부였다. 한 가지 분명하게 느껴지는 것은 다들 너무나 친해보였고, 여유가 있어 보였다. 아시아에서 온 참가자들 빼고는 다들 꽤 나이도 있어 보였다. 회의에 들어가서는 거의 완전히 소외당한 채로 있다가 나와서는 그저 인사나 하고... 그게 필자의 흑독했던 2001년 ISO 회의에 첫 참가 경험이다. 한 가지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Coffee Break때 더 이상 이야기할 논제도 없었던 필자는 별 생각없이 Secretary에게 2003년 차기 TC38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것이었다. 순전히 개인 자격으로... 만약 허락해 준다면 한



Picture 1. 필자가 처음으로 ISO/TC38 회의에 참가했을 때.

국 정부에다가 건의해 보겠다고 했다. 당시 ISO/TC38의 Secretary였던 영국 신사 Mr. Keith Shortland는 아시아에서 이런 제의는 처음이라며, 더욱이 TC38 총회에 처음 참가한 한국이 그런 제의를 하다니 놀랍다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처구니 없는 자격지심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그 후 4년. 필자의 변화된 모습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한국은 기술표준원 주최로 2003년 ISO/TC38 회의를 제주도에서 유치해서 필자가 알고 있는 한 가장 화려하게 성공적으로 끝냈다. 또한 현재 필자의 ISO 참관 모습은 당시 감탄의 대상이었던 다른 나라 대표단의 분주한 모습과도 흡사하다. ISO 회의 참석차 출장 갈 땐 필자도 출장용 가방에 서류가 한 가득이고, 회의장에선 “Document N number” 찾기에 바쁘고, 거의 대부분 전문용어는 사전 없이도 알아들을 수 있으며,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여 미리 국내에서 수렴한 한국의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격렬한 표현도 마지않는다.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임시 오피스에 가서 마음껏 자료를 요청해서 받기도 한다. 한국보다 훨씬 먼저 ISO/TC38에 참여하기 시작한 중국, 일본 대표도 놀랄 정도이다. 이제는 Item만 있다면 얼마든지 ISO에 NWIP를 제출하는 것도 식은 죽 먹기고, CD나 DIS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경험도 쌓였다. ISO는 일반인 혹은 연구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벽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ISO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비록 절차에 따라 참가하고 서류를 검토하지만 한번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겁낼 대상이 아니다. 지난번 스페인 회의에서는 ISO 조직 내에서 Developed & Developing Countries의 협력과 역할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있었다. 필자는 한국에서 ISO/TC38의 SC나 WG의 의장직을 하나라도 건져 볼까하는 일념으로 ISO 본부 파견관에게 한국은 경계에 있는 나라인 것 같은데 어찌해야하는 지를 물었다. 그는 아직까지 표준이나 규격에 관한한 한국은 ‘Developing Country’



Picture 2. ISO/TC38/SC24 회의장 모습.

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Developing Country가 할 수 있는 부의장직을 Try해 보란다. 약간은 실망스럽지만 어쨌건 불과 우리 나라도 3-4년 만에 뭔가 가능성을 얻었다. 조금만 더하면 표준이나 규격에 관한한 ‘Developed Country’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 ISO/TC38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국 대표단이나 민간 전문가들과도 친분이 생겼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근황을 전하기도 하며, ISO 회의에서 만나면 다들 너무 반갑다. ISO/TC38 관련 회의 참가자 중 비교적 어린 나이에 속하는 내가 그들 눈에는 무척 귀여워 보였나보다. 회의 기간 중 밤에 호텔 바에 가면 어김없이 물려있는 몇몇의 그들이 있다. 같이 맥주도 마시도 농담도 하며, 웃고 즐긴다. ISO 일로 출장 간 게 아니어도 그냥 전화하는 친구들도 생겼다. 영국의 절대 신사이자 TC38을 유머와 웃음으로 화기에애하게 이끌어가는 Chairman Mr. Frank Moore 할아버지는 멀리서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다. TC38 제주도 총회 때 한국을 너무 오고 싶었다가 SARS 때문에 오지 못하게 된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스웨덴의 Lowendahl 할머니와 늘 그녀와 동행하는 남편 할아버지, 위성통신으로 이메일 서비스가 되는 PDA 가지고 열심히 자랑하던 미국의 Whashington 흑인

아줌마(필자의 NWIP를 TR로 만들 때, 그 Project의 Leader여서 더욱 친하다). 진짜 말 많은 미국의 Keys 아줌마(진짜로 우리를 반겨주긴 하는데 너무 오버라 좀 부담스러울 정도, 한국 KOTITI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왔다고 자량이 대단하다), 역시 미국의 배블뚝이 Palenske 할아버지(한국이 제안한 드레이프 규격 개정안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장본인이다. 그는 이미 미국 자체 규격도 나서서 개정하고 있으며, 미국 규격 참고규격 란에 최초로 KS규격을 전격적으로 삽입해 넣었다.), 하루도 같은 옷을 입지 않고 패션 감각이 높은 프랑스의 쿿대 아줌마 Dascot 여사와 그의 수족 같은 동료이자 늘 Colorful한 양복의 얄전이 신사 Mr. Houillon(그는 모든 규격을 불어로 번역해서 문서화 한다. 참고로 ISO는 모든 공식문서를 영어와 불어로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영국 Woolmark에 다니며 늘 아이들 선물 사는 것을 잊지 않고 챙기는 잭뿔머리의 Rinda Riley 여사(아직도 지난번 제주 총회 때 한국 측으로부터 받은 자개 필통 얘기를 한다), 회의장에서 정말 열심히 진지함을 잃지 않는 아시아의 단걸을 주장하는 일본의 Kataoka Akira 할아버지... 다들 늘 보는 그리운 사람들이다.

이들과의 한국에서의 불고기과 제주도에서 먹었던 회 얘기도 빠질 수 없는 즐거운 추억이다. “이번에 우리가 이런이런 주제로 NWIP 내는 데 괜찮겠죠? 현재 규격은 이런이런 게 문제인 것 같은 데...” “이번엔 우리가 뭉쳐야 돼. 재네 규격은 안돼. 지금 때가 어느 텐데.”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도 사석에선 마음껏 오간다. 수많은 ISO 규격이 이렇게 만들어졌겠지... 비록 실제 회의장의 모습은 때론 각국의 이익에 따라 격렬하기도 하지만 대화와 타협 그리고 그 뒤엔 이렇듯 각국 참가자들의 친분과 협력 그리고 견제가 있다. 선진국의 참가자들은 대개 수 십년간 표준과 규격을 다루어오던 전문가들이라 늘 서로 보는 사람더라. “이제 겨우 4-5년 만났던 나도 이렇게 친한 데 저들은 얼마나 서로 친할까?”



Picture 3. 오전 회의를 마치고 City Tour 중에(Terrassa, Sapin, 2004).

ISO 회의는 사실 파급효과 면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회의이다. 해당 산업의 표준과 규격이 개정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이는 특정산업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SO/TC38 섬유분야의 회의 분위기의 전체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매우 품격이 높으면서도 가족적이다. 실제 가족을 동반한 참가자도 다수를 차지한다. ISO 회의장의 모습은 현수막이나 그 흔한 안내판도 없는 경우가 더 많지만, 주최국 혹은 도시에서 접대하는 만찬이나 투어에 참가해보면 그 참가단에 대한 대접이 얼마나 대단한 지 알 수 있다. 유럽의 경우 대개 만찬은 시장이 직접 평상시에는 일반인에게 개방도 되지 않는 역사 깊은 건물의 City Hall이나 고성 같은 곳에서 주최한다. 다들 화려한 정장을 입고, 격식있는 만찬과 우아한 사교춤을 즐긴다. 물론 아시아 참가자들은 대개는 약간 경직된 채로 그저 바라보고 있지만... 스웨덴 예테보리에서의 선상 디너와 고성에서의 만찬, 스페인 테라사에서의 초대, 마이애미에서의 유명한 American Football Club에서의 디너, 스위스 로잔에서의 풍류... 참으로 ISO 회의는 품격과 멋과 낭만이 있다.

불과 9번의 ISO 회의 참가만으로도 이제는 너무나 많은 추억과 소중한 사람들이 필자에게 생겨난

것 같다. 처음에는 암담했던 ISO 회의 참가가 이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진다. 늘 멋있는 도시를 골라 다니며, 적당한 간격으로 때 되면 열리는 여러 운치 있는 ISO/TC38의 회의들(참고로 회의 스케줄도 그다지 빡빡하지 않다). 다음 회의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란다. “얼씨구. 언제고 한번 꼭 남미에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더욱이 이제는 ISO에 가면 남의 일이 아닌 우리가 발의한 규격도 있고, 우리와 관계된 다른 나라에서 제안한 규격/표준안이 있다. 목적과 성과가 있기에 더욱 좋다. ISO 회의 참가와 활동은 이제 필자에게 있어서는 크나큰 행복이며,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닌 너무나 가까이 있는 즐거움이다. 필자에게 이런 기회를 주고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마다하지 않는 기술표준원의 많은 관계자와 ISO/TC38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에게 정말 고

마움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필자와 같은 아름다운 추억을 지닌 많은 한국의 전문가가 탄생하기를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 저자 프로필



#### 박 창 규

건국대학교 섬유공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석사)  
서울대학교 섬유고분자공학과(박사)  
2004 표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